"금속활자에서 한국은 세계를 앞섰다"

〈인쇄기술사의 여섯가지 쟁점〉

박성래
한국외국어대 교수·과학사

인류역사에서 인쇄술의 발달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인쇄술을 서술하는 역사가들의 태도는 나라와 민족마다 서로 다르다. 인쇄술의 역사를 설명하는 몇가지 대조적인 입장들을 부각시켜보기 위해 6가지로 정리했다.

1 목판인쇄 : 활자인쇄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초까지만도 목판인쇄가 널리 사용되었다. 중국과 일본도 비슷하게 목판인쇄가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목판인쇄란 서양에서는 희귀한 현상이다. 서양사람들에게는 인쇄라면 금속활자 인쇄만을 가리킨다고 할 정도이다. 대표적인 경우를 《랜덤하우스 백과사전》(1993) '인쇄술편' 첫 대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금속활자는 조선의 왕립주자소에서 1403년에 만들어져 6년 뒤 처음으로 이 활자로 책이 인쇄되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인쇄술의 증거가 1439년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활약하던 독일의 요한 구텐베르크(1400~1468)가 활자로 인쇄를 시작한 것이다."

인쇄술이라는 같은 말을 두고 동서양의 시각은 이렇게도 차이가 있다. 인쇄술의 역사를 말하려면, 이런 차이를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목활자/흙활자 : 금속활자

중국 사람들은 자꾸만 인쇄술 발달과정을 목판인쇄술에서 활자인쇄술로의 발달과정이 논리적이고, 또 실제 역사적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활자인쇄술은 진흙활자와 나무활자 등의 비금속활자에서 금속활자로 발달하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 목판인쇄술에서도, 그리고 다음 단계인 활자인쇄술의 목활자와 진흙활자에서도 중국이 처음이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인쇄술' 하면 중국이 모든 것에서 처음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서양사람들이나 한국인들은 이 문제를 그런 방향에서 보지 않는다. 활자인쇄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금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진흙이나 나무활자 이야기는 서양 인쇄사에는 나오지도 않는다. 한국에서도 금속활자 이외의 활자는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그리고 금속활자의 경우 한국은 세계를 앞섰던 것이다.

3 포도즙 압착기 : 황랍활자판

우리나라는 금속활자를 처음 발명했으면서도 실제로 대규모의 책 출판이 성공한 일도 없고, 조선후기까지도 여전히 많은 책을 목판인쇄로 찍었다. 중요한 기술상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활자를 판에 정리해놓은 다음 그 판을 확실하게 고정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꿀찌끼(황랍)로 활자들 사이를 메워 고정시켰고, 그 방식보다 발달한 방식으로는 기껏 대나무 가지를 잘게 잘라 활자 사이에 끼어 고정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한번 고정시킨 활자판을 가지고 기껏해 수십 장을 찍으면 다시 판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었다. 조선 세종대에 이런 방식으로 가장 발전된 갑인자 인쇄(1434)가 하루종일 한 판에서 찍어내는 분량은 40장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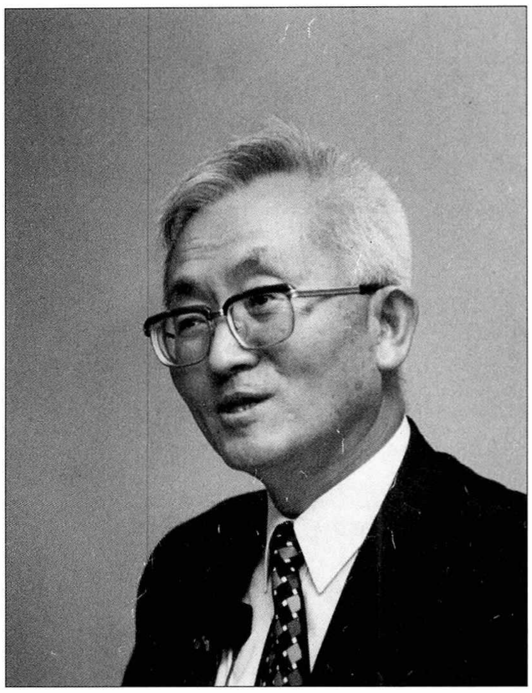
이렇게 우리의 활자인쇄술이 빠른 인쇄를 담보하지 못하는 동안 서양의 인쇄술은 포도주 또는 기름을 짜는 압력장치(Press)를 개량하여 인쇄기를 만들어냈고, 그런 방식으로는 하루 몇 백장이라도 찍어낼 수가 있었다.

4 돈(金) : 임금(王)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여 새로운 출판이 열릴 때 요하네스 푸스트라는 변호사는 그에게 돈을 대주었다. 말하자면 당시의 벤처기업에 자금을 댔던 것이다. 구텐베르크에게나 푸스트에게나 인쇄술이란 돈벌이의 수단이었다. 실제로 이렇게 시작한 인쇄술의 발달은 곧 유럽에서 경쟁적으로 벌어져 먼저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돈을 벌고, 그것이 사업으로 자리잡아 출판업이 융성하게 된다.

하지만 1403년 권근이 쓴 글에 의하면, 그 해에 새로 만든 활자는 그 비용을 왕실이 부담했고, 임금은 돈벌기 위해 만들지는 않았다. 실제로 조선초, 또는 고려말에 금속활자가 주조되었을 때 그 목적은 나라안에 책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책을 만들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다. 출판은 아직 기업이 아니었다. 돈벌이가 아직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점잖은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

"목판 다라니경이 당나라 측천무후가 새로 만든 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들어 그것이 신라의 인쇄물이 아니라 당의 것으로 보아야 옳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신라에서 '측천무후의 역법 개혁'을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은 측천무후의 한자사용이 곧 당나라의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박성래 교수.

5 표음문자 : 표의문자

어쩌면 우리나라와 서양의 인쇄술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을 제공했던 것은 글자·숫자일지 모른다. 로마자는 20여자에 온갖 부호까지 동원해도 100자를 넘지 않는다. 물론 이들 부호를 여러 크기 활자로 만들어야 할 터이니 수백가지 활자가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한자를 썼던 동아시아에서는 수백 자가 아니라 수천 자, 아니 일만 자는 넘어야 할 정도였다.

이 많은 활자를 하나하나 만들어 갖춰 두는 일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를 판으로 짜서 인쇄하게 준비하는 일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로마자 인쇄가 그 활자의 숫자 때문에 활자인쇄술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한자를 써야 하는 동아시아 문명에서는 활자인쇄란 목판인쇄보다 그리 나을 것이 없을 정도였다.

실제로 금속활자인쇄가 동아시아에서 그리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까닭은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는 한글이 있고, 일본에도 그들 문자가 따로 있기는 했지만, 한자 정보량이 절대 다량이었던 당시로서는 고유문자의 책이 적었다.

6 중국·한국 목판인쇄술의 갈등

중국과학사에 의하면 "1966년 남조선에서 발견된 목각 다라니경은 기원 704~751년 사이에 새겨진 것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것이다." 당나라 때에 목판인쇄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 1966년 발견된 다라니경은 그 한가지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 불경이 당나라 측천무후가 새로 만든 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들어, 신라에서 측천무후의 새 글자가 유행했다는 증거를 대지 못하는 한 그것은 신라의 인쇄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의 것으로 보아야 옳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라는 695년에 측천무후의 역법개혁을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695년 자월(子月)을 새해 시작으로 했다가 5년뒤인 700년에는 인월(寅月)을 새해 시작으로 되돌렸다고 되어 있다. 측천무후가 잠깐 동안 고쳤던 역법을 신라는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더 연구할 부분은 있지만 측천무후의 한자 사용을 가지고 당나라 것이라는 증거로 보려는 해석은 잘못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